

## 드 여유

기잡아  
4대153

장 대통령후보  
사지고 있다.  
를 7주 앞둔  
지지도 조사  
공화당의 조  
후보를 최고  
루 앞서 가는  
고어는 USA  
한 선거인단  
어도 214-153  
간격을 더욱  
관 입성에 필  
270에 바짝

# 윤미진 첫 금메달

한국이 양궁 여자개인전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한국은 18일 휴부시베이 올림픽파크 양궁장에서 열린 시드니올림픽 여자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무서운 10대' 윤미진(17)이 김남순을 107-106으로

꺾고 우승했다. 김수녕도 3-4위전에서 북한의 최옥실을 103-101로 눌러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 선수들은 이날 8강전에서 상대 선수들을 잇따라 격파하고 전원 4강에 진출했으며 또한 북한의 최옥실도 4강에 진출, 남북한 여자궁사 4명이 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을 휩쓰는 진풍경이 연출돼면서 양궁장에 '코리아'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관계기사 스포츠섹션, 본국지>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송은 미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소송은 미의회가 지난 1787년에 제정한 '외국인 불법행위 피해자 배상법' (Alien Tort Claims Act)에 근거해 이뤄졌는데 일본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은 안

는 코리아 퍼레이드를 알리는 오색의 배너가 나붙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다. <이승관 기자>

조성준 국회의원 등이 본국 축사사절로 참석할 예정이라

이어 개막축이려 간문화재 태평무

### 정신대 집단 소송

<1면서 계속>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태호 변호사는 "소송이 쉽지 않지만 절대 질 수 없다"며 "인류 문명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변호인단의 일원인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이 소송은 재판관할권을 두고 쉽지않은 투쟁을 벌여야하며 2~3년정도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최악의 경우 연방대법원

# 글렌데일 빈집털

## 상반기 438건 작년비해 26%증가 알람시스템 · 타이머 설치 바람직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글렌데일에서 최근 전문절도단에 의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글렌데일경찰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어난 도둑사건은 총 4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48건에 비해 25.0% 증가했다. 리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등 나중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손대지 않았으며 ▲보석류중에서도 금제품만을 골라 가져간 점등으로 미뤄 일단 집주인의 생활습관이 나 의출시기를 알아차린 전문적

